

## IgA 신증의 면역 형광 염색에 따른 임상과 병리학적 양상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

최소영 · 이동영 · 문주영 · 정경환 · 이상호 · 이태원 · 임천규

### Clinicopathological Feature Depending on Immunohistologic Patterns in IgA Nephropathy

So young Choi, Dong Young Lee, Joo young Moon  
Kyoung whan Jung, Sang Ho Lee, Tae Won Lee, Chun Gyoo Ihm

Department of Nephrology, School of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IgA 신증에서 면역 형광 염색 양상의 역할에 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에 경희대의대 부속병원에서 신조직검사를 시행하였던 총 1074예 중 의무기록 조사가 가능했던 204예의 IgA 신증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조직검사 당시 대상환자의 평균 연령은 34.1세, 남자 121명, 여자 83명이었으며, 평균 단백뇨는 1.8 g/gCr, 혈청 크레아티닌은 평균 1.2 mg/dL였다. Modified H.S. Lee의 분류방식에 의한 병리 등급은 Grade II가 109명 (53%)로 가장 많았고, I 49명 (24%), III 32명 (16%), IV 10명 (5%), V 4명 (2%) 순서였다. 반월상은 27명 (13.3%), 사구체경화는 81명 (39.7%), 간질의 섬유화는 87명 (42.7%), 염증침윤은 121명 (59.3%)으로 나타났다. 면역형광검사서 메산지움 염색 백분율과 그 정도 (0-4점)를 보았을 때 IgA는 100% (평균 1.3점), IgG 9.8% (1.1점), IgM 26.5% (1.0점), C3 92.6% (1.1점), C1q 1.4% (1.1점), Fibrinogen 14.2% (1.1점)로 나타났다. 이들의 양성 여부는 신생존과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다. IgA가 강양성으로 나타날수록 병리 등급이 더 높았고, C3 염색이 강양성을 보였으며, 혈청 IgA가 더 높았지만, 간질의 섬유화나 염증침윤 및 임상 소견상 차이가 없었다. IgG가 양성 (n=20) 또는 IgM 양성 (n=54)일 경우 각각 C1q 양성 빈도가 더 높으면서 간질의 섬유화가 더 심했다. 또한 각각 Fibrinogen 양성 빈도도 더 높았는데, 이때는 간질의 염증이 더 심했다. IgM 양성일 경우 IgA와 C3도 강양성을 보였다. IgG 양성인 경우 C1q, Fibrinogen이 모두 양성일 경우 C1q나 Fibrinogen중 한 가지만 양성일 경우보다 IgA가 강양성을 보였다. C1q가 양성인 경우 (n=11), 병리등급이 더 높았고, 간질 섬유화가 더 진행되어 있었다. Fibrinogen이 양성인 경우 (n=29), IgA가 강양성이었으며, 사구체경화와 혈뇨 정도가 더 심하였다. 결론적으로 IgA 신증에서 IgA와 C3 침착이외에, IgG와 IgM 또는 C1q와 Fibrinogen의 동반 침착이 더 심한 조직 손상과 관련이 있었다. 향후 이 소견들의 장기 임상 예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Key Words :** IgA 신증, 면역형광염색

IgA nephropathy, Immunofluorescence